

2005년 필리핀 개발포럼 및 제26차 필리핀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

3월 7~8일간 Davao市에서 필리핀 정부와 World Bank 공동 주최로 필리핀 정부인사,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대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제회의가 개최된 바,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핀 경제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음.

II. 회의개요

I. 핵심사항

- 필리핀 정부는 작년 Arroyo 대통령의 재집권이래 추진해 온 10대 공약(10-Point Agenda) 및 중기 개발계획(Mid-Term Philippine Development Program)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조공여국/국제기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원조공여국들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빈곤타파를 위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하였음.
- 유명한 주필리핀 대사는 우리의 對필리핀 ODA 현황과 다바오직업훈련원 개원식을 소개하고 필리

1. 회의제목

- 2005 Philippines Development Forum:a Meeting of the Philippines Consultative Group & other Stakeholder

2. 참석자(약 250명)

- 필리핀정부:대통령, 재무부, 경제개발청, 통상산업부, 에너지부, 교통통신부, 민다나오개발청, 농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 전원 및 하원의원 수 명
- 원조공여국/국제기구
 -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영국, 독일 등 24개국
 - World Bank, IMF, ADB, EU, UN 등 22개

국제기구

※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대사, 배한진 서기관, 최성호
KOICA 소장이 참석

Ⅲ. 주요 논의내용

1. 회의 전반

□ 금번 회의에서 필리핀측은 Arroyo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각료 전원이 참석하여 10대 공약 및 중기 발전계획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원조공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.

-①VAT 인상, Sin Tax 등의 증세조치, 전력공사 등 적자 국영기업 매각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 ②투자 유치노력 ③부패, 무능 해소를 통한 good governance 육성 ④교육, 보건 강화 ⑤지방별 균형발전 방안 등을 소개

□ 원조공여국 대표들은 필리핀 정부의 개혁조치와 관련, 작년도 경제실적 호조(6.1% 성장) 및 세계경제 호조와는 달리 기회의 창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(narrowing the windows of opportunity) 실기(失機)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.

-아울러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경과 및 미비사항을 세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계획을 주문함.

□ 필리핀의 정치, 경제, 사회 발전은 빈곤층과 소외

지역의 통합, 재정적자 해소, 부패무능 타파, 인구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임이 재차 확인됨.

-아울러 필리핀 전체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인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과 경제개발을 통해 동 지역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임.

2. 주요인사 언급 요지

1) Arroyo 대통령(폐막연설)

□ 작년도 대통령선거 이래 강력한 개혁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 바, 정치적인 안정, 민다나오의 평화질서 회복, 투자유치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, 재정개혁에 대한 의회의 협조 등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음.

□ 재정개혁조치로 조세행정개혁, 국영기업 사유화, 예산적자 해소 및 빈곤타파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, 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명단 제외, 일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상향 조정, 폐소화 강제 등의 좋은 징조가 나오고 있음.

□ 경제개발을 위해 콜센터, 하이테크분야,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, 농업, 주택, 광업 등의 육성 및 클라크-수빅 개발 등을 통해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
□ 대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영토보존과 해외파견근로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기존 우방국인 미국 및 아세안 제국 등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이슬람권, EU 등과의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갈 것임.

2) Von Amsberg 세계은행 지역대표

-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조짐 및 국제이자율 인상 등을 감안할 때,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제개혁조치의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음.
- 최근 전력요금 인상, 주류, 담배세 부과, 재정건정성 확보 프로그램 도입, 에너지분야 개혁조치 등 필리핀 정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나, 막대한 부채누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경제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임을 감안할 때, 재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함.
- 재정개혁 조치로서 세원발굴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개선 및 정부지출시 지출책임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(VAT) 인상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세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세제를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-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개혁의지와 실천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.

3. 전체회의 및 분야별 회의

금번 회의는 전체회의 시간을 줄이고 5개 분야별로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개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하였으며 필리핀 정부 및 공여국/국제기구 외에 NGO 및 경제계 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회의 형식을 변경함.

1) 전체회의

- 전체회의에서는 필리핀 경제현황 및 개혁추진현황과 관련하여 ①재정개혁 및 금융제도 정비 ②중기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.
- 아울러 민다나오 평화회담 및 개발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음.

2) 그룹별 회의

- 그룹별 회의는 Social Progress, Growth and Investment Climate, Economic and Fiscal Reforms, Governance,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등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.

IV. 참가 성과

-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의 경제현황, 중장기 발전계획, 국제사회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바, 이를 통해 우리의 원조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.

- 향후 對필리핀 원조는 필리핀이 당면한 정치·경제·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재국이 중장기적으로 설정한 개발계획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효과적인 시행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임.
- 이를 위해서는 원조예상성과분석, 프로젝트 추진방안 및 일정에 대한 점검, 사후관리에 대한

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.

- 아울러 World Bank 주도의 민다나오 다자신탁기금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[자료:주필리핀 대사관]